

안동 문화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5 Winter VOL.72

Contents

2025 Winter VOL.72

안동문화
FEEL

느

낌

이

있

는

관

광

04



재미있는 안동

10



편안한 안동

16



새로운 안동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맛있는 안동



깨끗한 안동



즐거운 안동

발행인 남상호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이지현 편집위원 김주호

주소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3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7-9917 이메일 jeanle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www.andong.go.kr/theme

발행일 2025년 12월(통권 제72호) 편집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백리의 삶, 묵계서원에서 배우다.

/ 글 박선미(국립경국대학교 강사) / 사진 박선미, 미래문화재단

안동시청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길안면 묵계리는 조선 전기 문신이자 청백리로 알려진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係行, 1431~1517)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묵계리는 원래 거묵역(居墨驛)이라 불렸으나, 1500년(연산군 6년)에 김계행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이듬해에 묵촌(默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김계행이 송암폭포(松岩瀑布) 위에 만휴정(晩休亭)을 건립하고 그 정자 앞 냇물이 잠잠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고 다시 묵계(默溪)라 하였다고 전해진다.¹⁾

보백당 종택은 김계행의 후손들이 묵계리로 옮겨온 것인데 종택 안내문에 따르면, “종택은 원래 풍산읍 상리마을에 있었으나, 후대에 모두 불타면서 근처의 고란리로 옮겼고, 1800년대 후반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종택은 ㄱ자형의 정침, 사당, 사랑채인 보백당, 그리고 대문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으로 종택의 정침 일부가 불탔으나, 1958년 현재의 건물로 복원하였다.”라고 한다.



한겨울의 묵계서원 읍전루

1 안동시 길안면 '마을의 전설과 유래-묵계리' 참고. (<https://www.andong.go.kr/csc/giran/contents.do?mld=0301000000>)



보백당 종택 정침



보백당 종택 보백당



보백당 종택 보백당 현판

보백당 종택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1687년에 김계행과 응계(凝溪) 옥고(玉沽, 1382~1436)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창건된 목계서원(默溪書院)이 자리하고 있다. 1706년에는 서원 내에 사당을 세우고 두 선생의 위패를 모셨다. 그러나 목계서원은 1870년(고종 7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고 이후 복원 칙령이 내려졌으나 바로 복원되지는 못했다.

초기의 서원은 묘우(廟宇)인 청덕사(淸德祠), 강당인 입교당(立教堂), 극기재(克己齋), 읍청루(挹淸樓), 진덕문(進德門), 신문(神門), 주소(廚所)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1925년에 강당 일부를 복원하고, 1998년에 서원복원 공사가 추진되어 두 선생의 위패를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다.²⁾

2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서원 향사』, 1996, 101~102쪽 참고.



목계서원 음청루



목계서원 강당 입교당



목계서원 강당 입교당 현판

목계서원은 보백당 종택과 함께 1980년에 6월에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지정 당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9호)으로 지정되었다. 서원 입구인 진덕문(進德門)을 들어서면 누각인 음청루(攄清樓)가 자리하고, 음청루를 지나 정면에는 서원 강당인 입교당(立教堂)이 있으며, 서원 우측에는 동재인 극기재(克己齋)가 있다. 강당은 앞면 5칸, 옆면 2칸 규모로 가운데는 마루를 깔고 양옆으로는 온돌방을 둔 전형적인 구조이며, 서원 왼쪽에는 이 서원을 관리하는 ㅁ자형의 주사가 위치한다.³⁾ 현재 목계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8월 5일에 두 선생을 기리는 향사가 거행되고 있다.

김계행과 옥고 선생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김계행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취사(取斯), 호는 보백당(寶白堂), 시호는 정현(定獻)이다. 현재 풍산읍 하리리 일대인 풍산현(豐山縣) 불정촌(佛頂村)에서 아버지

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안동 목계서원 및 보백당 종택(安東 默溪書院 및 寶白堂 宗宅)' 참고. (<https://www.heritage.go.kr>)

김삼근(金三近)과 어머니 안동김씨(安東金氏)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종과 연산군 대에 걸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성종 18년(1487년) 고령현감을 지낼 때는 온화함으로 정사를 돌보고 은혜로 백성을 다스리며 청렴하고 신중하여 3년 동안 고을의 기강이 바로 서고 아전과 백성 중에 누구도 속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⁴⁾ 연산군 대에는 대사간에 올라 여러 시정을 바로 잡고자 힘썼으나 제지당하자 1498년에 고향인 안동으로 낙향하여 풍산 사제(笥提) 위의 집 곁에 서재를 짓고 '보백당(寶白堂)'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扁其堂曰寶白。蓋取其所作詩吾家無寶物。寶物惟清白之意也。是時公已六十八矣。自以年至當休致。不復有意於世。潛心經籍。勉勵後進。退然若將終身。”⁵⁾

위의 「寶白堂先生行狀」에 따르면, “편기당(扁其堂)을 ‘보백(寶白)’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가 지은 시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으니, 보물은 오직 청백뿐이라(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때 공은 이미 예순여덟 살이었다. 스스로 나이가 많아 마땅히 벼슬에서 물러나 쉴 때라 여기고, 더 이상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경서(經書) 연구에 몰두하고 후진양성에 힘쓰며, 세속을 떠나 마치려는 뜻은 거하였다.”라고 전한다.

이처럼 김계행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은 보백당 당호뿐만 아니라 조카인 학조(學祖)와의 일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寶白堂先生行狀」에는 이 일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조카인 학조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그 권력 또한 대단



한겨울의 목계서원

4 「密菴集」卷19, '寶白堂先生行狀', 한국고전종합DB 참고.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450A_0190_010_0010)

5 「密菴集」卷19, '寶白堂先生行狀', 한국고전종합DB 참고.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450A_0190_010_0010)



2025년 봄, 대형 산불에도 만휴정은 불타지 않고 건실히 살아 남았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계행은 권세를 탐내지 않았고, 조카가 세도를 부를 때조차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한번은 학조가 김계행에게 “숙부께서 오랫동안 과거에 뜻을 두셨으니, 만약 벼슬할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힘써 도와드리겠습니다(叔父久困場屋. 如有仕意. 請致力).”라고 하자, 김계행이 “너의 힘으로 관직을 얻는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겠느냐(公又怒曰因汝得官. 何面目見人).”고 노하며 학조를 꾸짖었다. 이에 학조는 부끄러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김계행이 권세보다 청백과 도덕의 품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김계행은 무오사화 때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교유관계로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501년에 보백당 옆에 정자를 짓고

‘쌍청현’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만휴정’으로 바꾸었다. 만휴정은 1986년에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지정 당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3호)로 지정 되었다. 만휴정은 홀처마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정자 앞쪽은 개방형 누마루로 되어 있어 정자 앞을 흐르는 계곡물과 아래로 떨어지는 송암폭포를 감상하기에 좋다. 마루 양옆으로는 온돌방이 있다. 정자 내부에는 만휴정 현판 외에도 유훈인 ‘오가무보물(吾家無寶物) 보물유청백(寶物惟清白)’ 및 류도원(柳道源), 김굉(金曄), 김도행(金道行), 정박(鄭璞), 이돈우(李敦禹), 김양근(金養根) 등의 시판(詩板)과 김양근의 중수기(重修記)가 걸려 있다.⁶⁾ 정자 아래 바위에는 ‘寶白堂晩休亭泉石’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보백당이 말년에 쉬는 정자와 산수의 경치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김계행은 말년에 만휴정을 짓고 후진양성에 힘을 쏟으며 여생을 보냈다.

6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현판』(상), 2004, 140쪽 참고.



만휴정 정자



만휴정 현판

김계행은 임종 당시 자녀들에게 “청백을 가법으로 여기고, 공근을 대대로 지키며,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 끼리 우애를 지켜 화목하라(家傳清白, 世守恭謹, 孝友敦睦).”라고 하였고, “교만하고 경박한 행동으로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훼손하지 마라. 상제(喪祭)는 오직 정성과 공경에 있으니 사치하는 것에 힘쓰지 마라(勿以驕恣薄行墜毀家聲, 喪祭惟在誠敬, 勿務爲豐侈).”라고 하였다.⁷⁾ 이처럼 김계행은 청렴과 겸손은 물론이고 화목과 예(禮)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자손들에게 전했다. 이는 후대에도 본보기가 되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로 추앙받게 되었다.

옥고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대수(待售), 호는 응계(凝溪)이다. 옥고는 청백리에 녹선된 인물로 학문과 인품 모두 청렴하고 올곧은 선비로 알려져 있다. 길재(吉再, 1353~1419)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1399년에 동진사(同進士)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로도 성균관 박사(博士), 전적(典籍), 안동부통판(安東府通判)을 역임했고, 1408년에는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를 지냈다. 옥고의

성품 또한 청렴결백하기로 알려져 있고, 총명하며 학문으로 명망이 높았다.⁸⁾ 이러한 덕행으로 김계행과 더불어 조선 전기 대표 청백리로 기억된다.

청백리의 삶을 실천했던 보백당 김계행과 응계 옥고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목계서원에서는 (사)미래문화재단이 국가유산청의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꼬마도령의 놀이터 목계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정기프로그램 <사계절 놀이터>, 가족 프로그램 <우리 가족 목계 나들이>, 특별 프로그램 <친친 프로젝트>와 <소중해 성 귀중해 성>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목계서원과 보백당 종택, 만휴정 등을 함께 둘러보면서 두 선생의 청백리 정신과 삶의 가치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7 김동현, 『청렴 '김계행', 『전통의 감동과 힐링스토리』, 한국국학진흥원, 2013, 255~256쪽 참고.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옥고(玉沽)' 참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8661>)



시로 만들어진 눈내리는 치암고택

안녕하세요, 겨울

/ 글, 사진 김상준

하루이틀 매 순간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그리워할 시간이 지나간다. 지나간 시간, 그리운 마음이야 한정 없다. 그래도 아직 내 곁에 함께하는 지금이 그 마음을 다독여 준다. 어느새 스산한 바람이 살 곁을 스치듯 지나며 다시 한번 겨울의 정취를 되새기게 한다. 그러면 뼈를 파고드는 겨울의 냉기를 이겨냈던 지난날의 대견한 자신은 어딜 가고 죄 없는 얇은 옷가지를 책망하는 나약한 나만이 옷이 겨울을 맞이한다. 어려서 겨울은 그리 무섭지 않았는데 어째 성장하면 할수록 무섭게 다가온다. 이번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길 나지막이 바라본다.

이번 여행도 다시 시작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 유독 경험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늘, 그래서, 그러니, 그러므로 라는 그럴듯한 말로 새로움을 찾을 핑계를 찾았다. 이번에도 새로운 소중한 추억을 찾아본다.

안동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안동댐에 수몰되기도 했는데 어찌 이리 많은지, 다 보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매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 돌아다니고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집을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내 집만이 유일한 낙원인 내가, 이리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안동 여행의 시작



치암고택 들어가는 길

보면 앞선 말처럼 안동의 볼거리가 많긴 한가 보다. 늘 때마다 별천지처럼 새로운 모습이 펼쳐진다. 계절이 변하듯이 이 도시의 아름다움도 때때로 옷을 갈아입는가 보다. 아마도 이번에 묵어간 집이 내가 만나본 가장 오랜 시간을 간직한 집이 아닌가 싶다. 안동 안막동에 자리를 잡은 치암고택은 거의 150년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지금도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시간을 내 방문한

객들에게 한자리 내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마치 그러한 추억이 모여 집의 밀도를 높여 더욱 단단해지는 것인 양 아름답게 서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집. 어릴 적 놀던 시골 고향 같은 그리움이 느껴진다. 고택 이모저모를 살펴보다 보니 작은 강아지가 살며시 들어온 나를 쫓는다. 강아지가 나를 객실로 안내할 것 같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이끈다. 그게 어딘가.



치암고택 전경

고택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이 참 좋았다. 하지만 오늘 여행은 이제부터다. 느지막이 출발하였으니 바빠 움직여야 했다. 고택에서 원도심까지는 멀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치암고택은 안동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인 것 같다. 이 주말의 시작은 겨울을 맞이한 듯 꽤 한산한 모습이다.

어두운 그 아름다운 맛의 거리를 걷다 결국 술맛을 보게 된다. 'PUB 알리다'. 스산한 거리는 낮을 정리하고 저녁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는다. 이 시간과 이 날씨는 맥주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 안동은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나 보다. 지역 맥주가 있다. 더군다나 맛있다. 기쁘기에 한없다. 안동라거, 안동해밀, 안동금맥주 모두 잊을 수 없는 맛이였다. 막 시작된 저녁이 무르익어갈 때 매콤 달짝지근한 향이 발길을 잡아끈다. 어두운 줄 알았던 시장이 어느새 환해지고 눈과 코를 강렬히 유혹하는 짬뽕 골목이 시작된다. 뉘를 놓고 감각에 취해있다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발길을 이끈다. 시장 중앙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초록빛 잔디가 깔려있고 환한 불빛이 가득 찬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 풍물장터가 나타났다. 장터 안주, 또 안동이다. 안동 소주가 맞는다. 안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즐거운가 보다. 안동 소주와 다양한 전통주가 존재하는 신기한 모습과 이젠 그걸로 또 칵테일이다. 일단 즐거운 장터이다. 달콤한 전통 칵테일 한잔으로 어느새 파고든 한기를 쫓다 앞을 보니 장터를 장악하고 흥겨운 노래에 춤을 추는 외국인 무리가 보인다. 독일인이라고 한다. 원도심이란 단어가 어떤



PUB 알리



안동 풍물 장터

뜻인지 알았었는데 지금에는 모르겠다. 둥근 원인가 보다.

한껏 저녁 정취 만끽하며 다시 고택으로 돌아간다. 어둠이 소복이 내려앉은 시간 그 큰 대문은 든든하게 나를 기다려 주는 듯하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든든하게 기다려 준다는 것, 그것이 대문인가.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다. 어두운 고택 대문의 불빛은 집을 아늑하게 감싸 포근하게 느끼게 한다. 아무리 즐거운



치암고택 대문

하루여도 고단하긴 한 듯 집은 또 포근하다. 따스한 사랑채의 바닥 온기를 느끼며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 고택을 바라본다. 찬 바람과 따스한 바닥 온기, 아름다운 기억이다.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난생처음인데, 생각보다 따뜻했다. 한옥의 멋을 잘 모르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문살 창호지 틈을 통해 은은하게 밝아오는 이른 아침을 느낄 수 있고 문밖 새소리 자연과 맞닿은 듯, 구별된 듯, 모든 것이 은은했다. 그런데 이 문이 호랑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글썄... 먹을 것이 들어있는 나무종이 상자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궁금했다.

차갑고 축축한 안동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매력적이다. 마당이 있는 삶은 무언가 더 건강한 삶이 될 것 같았다. 문 하나 너머 마당이 펼쳐지니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아침 공기 마시며 느긋이 일어나 고택에서의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벌써 많은 사람이 아침을 시작하고 저마다의 행복을 찾고 있다.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



치암고택의 밤



일건재에서 바라본 치암고택의 아침



카페 라이프



맛우짜의 비빔짬짜면과 우동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개운한 아침 커피와 빵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다시 이곳저곳 여행자답게 열심히 여행을 시작하여 또다시 좋은 곳을 발견했다. 맛우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처음 접하는 비빔짬짜면이라는 메뉴가 궁금했다. 안동에서 만난 음식들은 특색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 술 문화 그 어떠한 것도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맛우짜에서 먹은 비빔 짬짜면도 참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발길을 내디뎠다. 어제의 그 어둠이 내려앉았던 거리는 어느새 밝았고 많은 사람이 여유와 즐거움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웅부공원에서 안동제비원 성주굿보존회의 성주굿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굿을 실제로 볼 기회는 없었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 최근 여러 미디어에서 한국 문화가 많이 노출되는 듯하다. 굿은 대체로 무서운 영화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최근 무척



영가현에서의 성주굿

깊이 있고 신선하고 신묘하게 묘사되는 영상을 많이 접하였다. 몇 해 전에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등장하여 예로부터 조상 대대로 모셔져 온 가신들의 존재감에 무언가 든든하게 혹은 두렵게 생각되어온 성주신을 모시는 제사를 보게 되어 우리 집을 지켜줄 것만 같았다. 귀신이나 범 죄만이 가득했던 옛 문화에서 또 다른 하나의 멋진 장르가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한층 넓혀준 것 같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성주신께 가네 나쁜 일들을 막아주며 기쁨만이 가득하길 간절히 빌어본다.

그렇게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고 마침내 이번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저녁 식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대미를 장식할 장소는 정겨운 느낌이 나는 건물의 땃집이라는 고깃집이다. 주변과 자연스러우면서도 독특하게 어울려 매우 매력적인 한국식당의 외관이다.

땃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특색있는 고기 맛과 분위기는 추워지는 지금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특별히 뼈구이가 매력적



땃집 저녁 풍경



시로 만들어본 눈내리는 치암고택

interview. 안동의 청년 기업가

시간이 빛은 진심

명인안동소주 본부장
박춘우

/ 글 이지현

/ 사진 명인안동소주, 한국정신문화재단



다시 시간이 흘러 겨울입니다.
2025년 안동문화필 겨울호에서는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안동소주를 만드는
박춘우 씨를 만났습니다.



박춘우 명인안동소주 영업총괄본부장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명인안동소주 전시장에서

Q. 안녕하세요? 안동문화필 구독자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춘우입니다. 저희 가문은 3대에 걸쳐 안동소주를 빚어왔어요. 할아버지 박재서 명인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로 지정되어 평생 전통 증류식 소주의 맥을 지켜오셨지요. 술 빚는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한평생을 바쳐 전통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라고 믿으시는 분이셨죠. 아버지 박찬관 대표는 그 전통의 토대 위에 현대 소비자의 감각과 경영 철학을 더해 명인안동소주를 전국과 세계에 알리셨어요. 아버지는 전통과 혁신, 두 단어가 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미생물학, 대학원에서 발효공학을 전공하며 과학을 공부했고, 발효학 실험실에서 배운 이론과 데이터를 전통주 제조 공정 개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6년입니다. 현재 전수 보조자이자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 그리고 현장 운영을 도맡고 있어요.

Q. 3대째 안동소주의 맥을 이어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을 것 같아요.

A. 쉽지 않은 않지요. 저는 어린 시절 늘 술 빚는 풍경을 배경으로 자랐어요. 마당 한 편에서 쌀을 씻는 소리, 고운 누룩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 증류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방학이 되면 양조장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쌀을 나르고, 술독을 닦고, 발효통 위에 올라가



인증 마크들



명인안동소주 전시장



명인안동소주 전시관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술이 살아 숨 쉬고 있구나.’하고 느꼈어요. 술 한 병이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장인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깨달을 수 밖에 없었죠.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요. 시장이 급변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언제나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는 기분이었죠. 때로는 ‘전통’이라는 두 글자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느 날, 오랜 세월 양조장에서 생산을 책임지던 공장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단숨에 생산 전 과정에 투입되었습니다. ‘도와주는 손’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어요.

제가 실천했던 적도 있는데요. 환풍 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시간 작업하다가 벌어진 일이지요. 그날 이후 저는 양조장 내 안전 장비를 대폭 보강했고, 모든 공정에 2인 1조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효실을 지하로 옮겨 온습도 관리를 체계화하고, 온도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전통 제조

과정에 현대적 안전·품질 관리 체계를 결합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적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보완하면 더 나은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Q. 명인안동소주만의 특별함도 있나요?

A. 명인안동소주의 핵심은 500년 역사의 ‘3단사입법’입니다. 세 번에 걸쳐 누룩과 원료를 나누어 넣어 발효시키는 이 방식은 술맛의 깊이와 향을 극대화하지요. 100% 안동산 쌀과 좋은 물이 그 바탕이 되고요. 은은한 곡향과 누룩향이 어우러진 부드럽고 깊은 풍미는 이 공정 덕분입니다. 여기에 현대 기술을 더했지요. 기존의 상압식 직접 증류에서 감압식 간접 증류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탄내를 제거하고, 곡향과 발효향을 온전히 살렸어요. 숙성 기간 역시 1년 이상으로 유지하여 술의 부드러움과 풍미를 한층 끌어올렸어요. 발효 온도와 기간, 증류 방식의 미세 조정은 모두 과학적 데이터와 경험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는 ‘전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느끼는 맛의 균형과 완성도를 높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현대식 설비를 갖춘 명인안동소주 양조장

Q. 전통과 현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A.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변화를 경계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통을 과거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호흡하며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해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딩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어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SNS 마케팅과 젊은 세대 취향을 반영한 패키지 디자인도 시도했고, 전통주와 어울리는 푸드 페어링도 제안했지요. 병 모양과 라벨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정판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선보였을 때 전량 완판되었지요. 운도 따랐어요. 코로나 시기 '혼술'과 '홈파티' 문화 확산과 함께 온라인 판매 채널이 급성장했어요.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에서 안동소주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20~30대의 젊은 층은 안동소주를 술 그 자체의 맛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만난다고 봅니다.

Q. K-POP 데몬헌터스 열풍으로 K-컬처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지요. 얼마전 APEC 정상회의에서 IMF 총재가 안동소주 하이볼을 마시고 극찬했다고도 하고요.

A. 네, 맞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이 제게 중요한 과제이지요. 몇 해 전, 경상북도청과 안동소주협회가 함께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위스키의 본고장에서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해하던 현지인들이 시음 후에는 곡향의 깊이를 극찬했어요. 시음회 이후 영국 현지 바와 레스토랑에서 판매 문의가 이어졌고요. 최근에는 세계인에게 친숙한 위스키 타입의 '오크통 숙성 안동소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산·국산 오크통을 활용해 5년 이상 숙성한 40도 제품, 기존 안동소주와 블렌딩해 가볍게 숙성한 25도



개발중인 '오크통 숙성 안동소주'



안동소주를 담은 오크통



명인안동소주 체험장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양 소비자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면서도 안동소주의 전통성을 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가까이서 보고, 또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정말 응원하게 되네요. 명인안동소주의 비전과 박춘우 개인의 꿈도 듣고 싶습니다.

A. 전통주가 '옛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세계가 즐기는 한국의 프리미엄 주류'로 자리 잡는 것이 명인안동소주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빛은 진심'을 안동소주를 접하는 분들이 느끼면 좋겠어요. 그만큼 진심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술을 빚고, 발효향을 맡으며 '이게 바로 우리 집의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빚고, 곁에서 배우는 지금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조금씩 전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지요. 지금은 3대째 이어오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100년이 되지 않을까요?



양조장, 전시장에 이어 박춘우 총괄본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만은 시간이 더디게 가기를 바랐습니다. 안동소주가 다소 낮은 젊은 층에는 하이볼로도, 익숙한 층에는 전통을 그대로 담은 도수 높은 술을 만들어대는 공간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라며 안동문화필 겨울호의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따뜻한 지면으로 새해에도 만나겠습니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안동회관



안동회관은 53년 전통의 맛과 전통을 이어 3대째 운영 중인 한우 불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다. 그 역사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안동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곳이다. 넓고 깔끔한 내부는 단체 손님도 넉넉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수의 좌석이 마련돼 있다. 얇은 전골냄비에 신선한 한우가 얇게 썰려 수북하게 담겨 있고 육수, 대파, 양파가 깔끔하게 어우러져 있다. 짜지 않고 은은하게 달콤한 육수 맛이 한우의 고소함을 극대화하며,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린다. 잘 익은 불고기 몇 점과 함께 양파, 마늘을 곁들이고 쌈장을 살짝 올려 쌈을 싸먹으면 풍성하고 조화로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50년 넘게 사랑받아온 비결을 그대로 이어가는 안동회관에서 따뜻한 밥상과 한우 불고기를 맛보길 추천한다.



- 주소** 경북 안동시 태사길 71
- 전화번호** 0507-1396-8733
- 영업시간** 10:30~20:00 (마지막 주문 19:00)
- 휴무일** 연중무휴





안동가마솥손두부

안동가마솥손두부는 직접 만든 순두부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식당이다. 콩, 들깨, 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100% 국내산 식재료만을 사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담겨 나온 순두부찌개를 한 숟 떠보면 몽글몽글 부드러운 순두부가 입안 가득 퍼진다. 새빨간 국물 속에서도 재료 본연의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살아 있어 속을 따뜻하게 달래준다. 함께 주문한 치즈 계란말이는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자 고소한 치즈가 주르륵 흘러내리며 매콤한 순두부찌개와 잘 어울린다. 이와 함께 나오는 밑반찬들은 또한 하나같이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를 원한다면 안동가마솥손두부를 둘러보시길 추천한다.



-  **주소** 경북 안동시 퇴계로 418
-  **전화번호** 054-853-3178
-  **영업시간** 11:00~20:00
(브레이크 타임 14:30~16: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카페 단원의뜰

단원의뜰은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축물과 푸른 잔디밭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대표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찰방으로 재직했던 안기역이 있던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단원 김홍도 공원' 안에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공원 중앙에는 단원루라는 정자가 보름달 조명과 함께 세워져 있어 신비롭고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한다. 카페 실내는 노출 콘크리트 벽과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인테리어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준비물 없이 밑그림이 있는 캔버스에 번호에 따라 차근차근 색칠하는 캔버스 컬러링 체험을 운영한다. 물감, 붓, 팔레트 등 모든 재료는 카페에서 제공해 편리하고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힐링하기 좋은 것이 포인트다. 안동의 역사와 예술적 감성을 느끼며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단원의뜰에서 특별한 휴식을 즐겨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새골1길 25
-  **전화번호** 0507-1369-7094
-  **영업시간** 11:00~22:00 (마지막 주문 21:00)
-  **휴무일** 매주 수요일





Cafe Huh

Cafe Huh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밝은 인테리어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분위기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카페다.

'Huh'는 'Have you hugged, today?', '오늘,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나요?'의 약자다. 누군가와 나누는 다정한 인사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다독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카페를 시작했다고 한다.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해 매일 아침 직접 빵과 구움 과자를 구워낸다. 말차와 레몬의 조합이 잘 어우러진 말차레몬티, 은은하게 번지는 코코넛 향기에 바나나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코코넛바나나밀크티 등 타 카페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색다른 음료들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에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혼자 있어도 괜찮은 시간이 되는 Cafe Huh에서 따스한 시간을 보내보자.

-  **주소**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82
-  **전화번호** 010-3264-9909
-  **영업시간** 10:00~20:00
-  **휴무일** 매주 수요일



뜻밖의 수확, 정말의 열매, 나머지, 그래서 거의 전부

/ 글, 사진 풍요로운 농사, 빛나는 토제팀
김국희, 배서영, 송지용, 고무정, 박가인, 양애진, 김킴, 류한석

거의 전부인 것들.

김국희

여기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회의 땅 위에서 농사를 지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저는 이미 긴 글을 썼으나, 이 글들 앞에서 할 말을 잊고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됩니다.

나는 대체 나(너)에게 뭘 하자고 한 걸까요. 안동에 이사 온 후 펼쳐진 것들은, 처음부터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짙은 어둠을 깊이 바라보고 곁에 가만있어 주는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맞이한 열매는 묘한 슬픔을 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 익었으면 이만 아름답게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심지 않은 씨앗, 뜻밖의 수확 앞에서 저는 성은(盛恩)이 망극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인연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하회마을, 글을 쓸 소중한 기회를 주신 안동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지현 담당자님께 새삼스러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소감이냐며 웃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 가감 없이 표현해 보자면, 넘치는 복에 정말 신이 납니다.

제 이야기를 빼야 “거의 전부인 것들”이 담기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정성 들여 읽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모든 것 - 하회, 농사라는 예술 한가운데에서.

배서영

국회는 작품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이게 무슨 작품인지, 농사와 무슨 차이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 안에 의도가 깃들어 있다면 작품이지'하고 쉬이 넘겼다. 나는 나를 살리러 갔다. 직관적인 흙과 땅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국회의 작품으로 들어갔다. 도시에서의 일상을 보통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노동하는 것은 '물질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이었다. '현실적'인 일들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면 노동하는 만큼 변화하는 땅과 몸의 감각을 느끼고 싶어졌다. 손끝에서 감각이 느껴지고, 땀이 흐르고, 눈으로 변화를 보는 일은 외려 '현실' 같았다. 국회의 말하는 '조금씩 농부'. 그게 나였다. 비유적인 농부가 아닌 진짜 농부. 비유적이지 않다는 게 좋았다. 도시는 은유와 비유,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겨울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야 나는 국회의 의도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국회의 농사를 짓던 땅에서, 국회의 했을 행위를 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해와 날씨,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시간을 통해 몸에 흘러 들어오는 감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철이 든다는 건, 철을 아는 몸이 되는 거래. 계절에 따라 저절로 해야 할 일을 알아차리는 몸이 되는 거지."라 말하던 국회의 말을 문장이 아닌 감각으로 이해할 때, 계절은 한 바퀴를 돌아있다. 철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철이 지나면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때'에 하게 된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온 우주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농사와 농사 사이에 사람들과 새참을 나눠 먹고, 함께 자고 일어나 수다를 떠는 시간은 굳이 커뮤니티나 관계 따위의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냈다. 구태여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노래나 가락이 우리 사이의 작은 공연을 만들고, 어렵게 시간을 맞춰 놀러 가자 하지 않아도 땀 흘린 뒤 강으로 풍덩 뛰어들면 그만이었다. 모래톱에서 온몸으로 뒹굴고 돌아와 크게 웃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말이나 기획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모든 것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섬세하게 조정하는 도시와는 정반대에 있는 삶이었다.

가을걷이를 마친 국회는 불현듯 이제 작품이 완성된 것 같다고 했다.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로 묶인 모습을 목격하니 뭔가 다 마친 기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국회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한 편 꿈처럼 지나간 시간을 이제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쟁기를 함께 끄는 친구는 어디서 만난담,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마시는 막걸리는 어디서 마신담. 눈짓 한 번 주고받고는 와하하 웃으면서 강으로 뛰어드는 기쁨은 어디서 만난담. 국회는 무수한 물음표를 남기고 떠나는 느낌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물음표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 찾아 헤매는 바로 그 물음표 아닌가.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던 것을 드러내고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라면 국회는 예술을 했다. 그리고 그 예술은 내 안으로 들어와 물음에 답하라고 추동한다.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작품에 참여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하는 건데...



춤이 되어 만나는 공동체, 춤추는 공동체 - 안동 삼발 공동체, 땅의 춤

송지용

처음 안동에 춤이 되어 찾아간 것은 2023년, 2년 전이었다. “추수의 춤을 함께하고 싶어요.” 삼이라는 신성한 작물과, 농사의 과정, 땅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토제(土祭), 그리고 그것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획. 나는 그 초대에 주저 없이 응했다.

그렇게 가을 벼산서원 인근에서 우리는 삼을 수확하고 땅에 감사를 표하는 춤을 춘 뒤, 차와 싱잉볼로 정화와 풍요를 나누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흘렀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기쁨이 춤이 되었다. 그 자리는 다시 이어졌다. 2024년의 토제에서도 춤을 추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진실한 몸짓이었다. 흙을 밟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께 춤을 풀어냈다. 그 몸짓들은 춤과 비춤(非舞)의 경계를 허물었다. 비밀상과 일상이 스며들었다. 관계가 춤이 되고, 농사가 예술이 되었다. 그 순간, 자연과 사람이 하나의 리듬이 되었고, 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의 춤이 되었다. 2025년, 나는 더욱 깊이 이곳과 연결되었다. 농사도 함께하고, 안동 아이들과 움직임 수업을 했으며, 하회의 ‘루팅(Rooting)’ 축제에서도 일상의 걷는 춤을 나누었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토제가 열린다. 이번에는 하회 별신굿의 본질을 살린 우리만의 판이 펼쳐질 예정이다. 나는 그것이 가족 세우기의 확장판, ‘공동체 세우기’가 되는 순간을 기대한다.

나의 춤은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고, 공동체는 나의 춤 속으로 흘러들 것이다. 올해도 하회의 삼발 공동체에서,

땅의 춤이 다시 피어나길 바란다. 땅 위에서 춤추는 일은, 사실 땅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안동에서 찾은 평안

무정

언 땅과 녹은 땅, 벌에 녹아 부푼 땅마다 삼과 쟁기와 곡괭이를 각기 달리 대야 했다. 나이 서른둘에 처음 느끼는 차이였다. 그간 얼마나 흙과 유리되어 도회지 백면서생으로 살았단 말인가. 한나절 지나 들밥을 먹으려 올리는 손이 희어 부끄러웠다. 홀로 하면 노동이나 함께 하니 놀이라고, 국회가 흥얼거렸다.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시작할 때 막막해 보이던 밭을, 열 명 모여 시농했을 뿐인데 금세 갈아 해가 아직 중천이었다. 보습 지난 자리에 씨 뿌리고 덮던 그 초봄, 열은 비가 부슬거렸다.

이때 뿌린 씨앗이 석 달 만에 울창한 숲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다시금 모여 낫과 톱을 들었다. 휘영청 솟은 삼 줄기가 삼 미터를 훌쩍 넘었으니 삼의 탄소 포집 효율을 알 만 했다. 삼대를 자르며 만져보니까, 옷자라고 성글어서 언제건, 흙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사람이 입관할 때 삼베옷을 입는 까닭을 알 듯도 했다. 이렇게 몇 번 수확하다 보면 나도 삼베옷을 입고서 함께 흙으로, 먼지로, 벌의 조각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었는데, 이는 불야성의 도회지에서는 영하기 힘든 생각이었다.

삭풍 부는 작금에 돌이키니, 벼들과 더불어 파종하고, 섬유용 삼대를 수확하고, 수확한 삼대로 솃대를 만든 안동에서의 한 철 이후 전에 없던 평안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다. 잊지 않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니, 이 평안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그러나 혼자 발굴한 평안이 아니므로, 함께 같이 농사한 벼들과 어울려 보내는 시간 속에서, 이 평안이 우리의 핏속에 녹아들어 오래도록 우리를 구성할 것이었다. 산천초목 매컬하듯 들이닥치려던 화마(火魔)가 비껴가고, 하늘에 구멍 난 듯 비 쏟아지던 여름 지나간 뒤 맑은 가을서리 아래 평안한 동쪽 마을, 안동(安東)에서 보낸 한 철과 같이 말이다.



우연히 안동에 살게 되었다고 하기엔.

박가인

“일이 그렇게 됐는데, 난 이제 너밖에 없어. 네가 본처야. 그래서 오늘 너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우린 어차피 죽어서도 함께니까,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하자. 생각 잘하길 바란다.”

이 글은 올해 4월, 서울 을지로 한복판에 살며 잠깐 방문한 하회마을의 시농제 때 땅에 보내는 편지로 썼던 글이다. 그때는 내가 안동으로 이사해서, 농사를 짓거나 음악 공간을 운영하며, 살게 될 거라 상상하지 못할 때였다. 인제 와 다시 글을 보니, 언젠가 땅으로 돌아가 스스로가 땅이 되는 일을 말하며, 살아 있을 때 잘하자는 말에는 ‘지금’을 인지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 전 각자의 제물을 상에 올리며 우리 식의 시농제를 지냈다. 당시 나는 을지로에서 6년 동안 운영했던 예술 공간을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무엇을 결정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 정처 없었다. 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사업자등록증을 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조금씩 농부 친구들 앞에서 저 글을 읽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돌아보니 서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에휴... 이제 다 망했어,

뭐.” 라고 말하곤 했지만, 나는 나의 지난 6년과 그 공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다.

서울 인근에서 살았기에 농사도 처음이었고, 문화와 예술 언저리에서 다양한 작업과 기획을 해왔기에, 늘 긴장된 상태였다. 하회의 길, 흙 위에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에 놀랍도록 힘이 빠졌다. 지쳐 나가떨어지는 무력이 아니라, 지속되는 에너지의 움직임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기분. 생각이 사라지고 몸이 힘든 상태가 오히려 좋았다. 안동에 이사 온 후 자주, 평화롭고 호사스러워진 삶에 감탄하고 있다. 이게 웬 횡재인가.

리듬은 관계에 새겨진다 - 하회가 우리에게 남긴 것

양애진

봄비가 내리던 날, 시농제로 시작했던 우리의 리듬은 한여름의 수확제를 거쳐 어느덧 초겨울에 닿았다. 삼은 모두 베어졌고, 밭은 비워졌다. 생산의 마침표를 찍고, 남은 것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 길으로는 모든 일이 끝난 듯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는 예감이 든다. 겨울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관계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다.

지난 일 년간, 우리는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남겼을까? 리듬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졌나. 문득, 관계'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함께 배운 것은 생산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었다. 농사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의 리듬을 조율하는 일이었다. 옆 사람과 간격을 맞추고 앞사람과 속도를 맞추며 호흡해야 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리듬을 나누는 기술'임을 몸으로 배웠다.

하회에서 시작된 우리의 농사와 의례는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인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졌고, 매번 새로운 호흡을 맞추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어긋남을 맞추는 과정이 곧 리듬 공동체의 농사 방식이었다. 관계 인구라는 것은 물리적 터전을 넘어 만들어졌다. 특정 마을의 일원이 아니라, 리듬을 통해 연결된 존재와 이웃들이었다.

그렇다면 삼을 모두 길러내고 수확을 마친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함께 만나고 서로의 리듬을 조율하던 매개가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애초에 리듬은 삼을 길러내는 것만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리듬 공동체는 단지 하회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제에서도, 해남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며 계속되어 갔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의례, 농사 별신굿을 앞두고 있다. 이는 풍년을 기리는 기원도, 땅에 감사하는 의례도 아니다. 관계를 다시 묶는 의례이자, 새로이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이다. 흠은 잠시 얼어붙지만, 관계의 리듬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리듬은 땅이 아니라 관계에 새겨진다.

머물고 스며들어야 알게 되는 안동

김킴

하회에 도착하자마자 앉았다. 여름의 한복판, 도착한 하회의 초집에서 갑자기 오한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대로 잠들어 일어나니 이슬로 반짝이는 나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준비물을 챙겨 삼밭에 갔다. 좁은 길을 따라 키보다 큰 삼 사이로 피부와 피부가 화학적 신호와 전기적 신호로 장을 만들었다. 밭과의 충분한 접촉의 시간을 마치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밭등을 잡고 낮으로 내려쳤다. 속도와 마찰과 힘으로 대가 잘렸다. 한참을 내리치다 쉬는 시간에는 춤을 췄다. 국회가 갈아준 낫을 양손에 들고, 아니면 한 손에 삼대를 잡고 휘두르며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한바탕 밭일 후에 낮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 초집의 마당을 돌보았다. 새로 산 예초기도 써 보고, 비키니에



셔츠, 몸빼 바지를 입고 풀도 뽑았다. 온 사방에 물을 뿌리며 놀다 강가에 가 조용히 물속에 눕기도 했다.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

저녁에 뛰어 나와, 아침에 일하던 밭, 마을 어귀의 연꽃, 유유히 흐르는 강을 스쳐 지났다. 하루 만에 거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노을이 지며 내가 알던 경계와 색은 흐려지고, 달빛 아래, 형태와 기억만 남았다. 상반기가 반으로 접히는 그날 결심했다. 하반기는 반격이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발밑의 삼과 땅을 바라보며 나는 이야기는 각자의 내면에서 은밀히 흘러나온 파도 같았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내어보는 말들과 귀에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나라는 작은 해변에 닿아 스미고 있었다. 그 여름, 안동에서 나는 어떤 껍데기를 하나 벗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마을에서 시작해 숲을 지나 병산서원까지 완주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11월 13일의 토제가 기다려진다.

기억의 회로를 잇다

류한석

몸이 먼저 알고 있던 귀향

나는 풍산 류씨로 태어났지만, 마흔이 넘어 하회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나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 이름 아래 어떤 고통과 지혜가 쌓여 있는지.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하회는 교과서 속 유적이거나 명절에 잠깐 들르는 옛집이었다. 조상의 마을은 멀고, 내 일상은 빠르게 흘렀다. 2020년, 아버지의 은퇴와 나의 일이 맞물리며 안동으로 내려왔다. 계획된 귀향은 아니었다. 마치 강물이 잊고 있던 길을 따라 흘러들 듯, 몸이 먼저 알고 있던 방향으로의 복귀였다. 돌아온 뒤에야 알았다. 나를 이끈 것은 결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기억의 회로였다는 것을.

기억을 잃지 않음으로써

하회는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는 곳이다. 강의 곡선은 물길이자 기억의 선율이다. 길으로는 물이 돌지만, 그 안에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돈다. 이 땅의 지형은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시간과 생명의 순환을 그려놓은 설계도였다. 하회마을이 품고 있는 풍산 류씨의 역사는 조선의 기억 기술이었다. 서에 류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문장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함으로써 국가가 윤리를 잊지 않게 하는 장치였다. 불천위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이 망각을 경계하기 위해 반복한 의례였다. 그 모든 체계는 “기억을 잃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세운다”라는 윤리의 회로였다.

내 뉘의 회로를 잇는 일

하회는 그저 오래된 마을이 아니라 말없이 이어져 온 생명의 회로다. 이곳에서는 과거가 과거로 머물지 않는다. 시간은 둥글게 흐르고, 기억은 바람과 함께 현재로 되돌아온다. 고리타분하다고 여겼던 예법과 절차 속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세대가 서로를 이어주는 깊은 질서가 숨어 있었다.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 닿는다. 그것이 유교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윤리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 나는 이제 안다. 돌아온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른 시간과 기억,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나는 이 땅을 다시 밟고 있다. 하회는 여전히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나는 내 뉘의 회로를 다시 잇는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 글, 사진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도시팀, 문화사업팀

안동은 유서깊은 전통과 한국정신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문화적 자산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고 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안동을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팀과 문화사업팀의 사업을 살펴본다.

1 문화도시팀 |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은 예로부터 ‘놀 줄 아는 도시’였다. 유교의 고장이라 하면 으레 엄숙하고 조용한 풍경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안에는 삶을 노래하고 흥으로 풀어낸 ‘놀음의 미학’이 살아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해학, 선유줄불놀이의 장엄함, 종가의 풍류와 마을 잔치의 정겨움까지. 안동의 놀이문화는 곧 사람 사는 이야기이자, 공동체의 숨결이다. 이제 안동은 이 전통의 뿌리를 오늘의 일상 속으로 다시 불러들이려 한다.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그것이 안동이 그리는 새 문화도시의 비전이다.

문화유산을 단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확장한다. 마을 골목에서, 강변에서, 그리고 도심의 작은 광장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간다. 안동의 문화도시 사업은 ‘전통문화의 즐거운 현대적 전환’이라는 큰 축 위에서 움직인다. 오랜 시간 쌓인 의례와 풍속, 공연과 잔치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장(場)을 펼친다. 결국 이 도시가 꿈꾸는 것은, 유교의 도시 안동이 다시 사람의 흥과 예술의 숨결로 살아나는 것, ‘전통’이 ‘현재’의 놀이가 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이다.



시민문화축제 문안인사

오백년 강이 다시 빛을 쏜다, 하회선유줄불놀이

달 밝은 하회의 강 위로, 불빛이 물결처럼 번진다. 줄 위를 타고 흐르는 불꽃이 바람에 날리면, 그 아래 사람들의 감탄이 흩어진다. 올해는 한층 새로워졌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관람객은 인당 1만 원을 내고 입장하지만, 그 금액은 단순한 입장료가 아니라 '안동의 전통을 함께 이어가는 참여비'로 쓰인다. 더 나은 연출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안전한 관람 환경은 올해 하회선유줄불놀이를 찾은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졌다. 강변 출입구 쪽에는 직접 달걀불과 소원 숯불지를 제작할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을 돕는다.

안동은 '하회선유줄불놀이'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산업'으로 확장하길 소원한다. 흘날리는 불빛 하나하나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밝히고, 새로운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자라나는 길을 비추는 등불인 셈이다. 하회의 강물은 그렇게 새로운 안동을 비추고 있다.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곳, 문화놀이터

도심 한가운데, 오래된 건물과 골목이 문화와 예술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없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두의 문화 공간, 문화도시 안동이 꿈꾸는 '문화놀이터'다.



하회선유줄불놀이 체험 프로그램

시민이 운영하고 예술인이 참여하는 '〈도심〉 문화 놀이터'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다. 이를 위해 도심권 15분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지는 '시민공간운영자'들의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 예술인' 주도의 유휴공간 개발, '문화거점마을' 조성을 통한 마을 단위의 새로운 문화 창출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곳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시민이 참여자로서 공간 운영에 함께 한다. '〈도심〉 문화놀이터'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문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도심 내에 다양한 주제의 문화 공간을 확장해 나가며, 일상 속에서 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순환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문화놀이터

기존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은 도시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과도 같다. 낡은 벽돌 사이로 새 빛이 스며들고, 시민과 예술인이 맞닿아 새로운 숨을 얻는다.

출근길에 들르는 작은 전시회, 저녁 산책길에 만나는 골목 음악회, 주말마다 이어지는 각종 문화예술 클래스들이 안동을 문화로 질게 물들이길 바란다.

안동의 맛과 향, 이야기가 흐르는 극장식 레스토랑 '수운잡방'
도심 한가운데, 기차와 연이 닿는 철우(鐵友)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었던 '철우회관'이, 안동의 전통문화를 품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극장식 레스토랑 '수운잡방'은 안동의 보물 '수운잡방' 조리서를 기반으로 한 음식과 문화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극장식 레스토랑이다. 파인다이닝 메뉴가 식탁 위에 오르고, 안동 종가의 이야기가 무대 위로 펼쳐진다. 손님들은 음식 한 접시마다 종가문화의 숨결을 느끼고, 공연 한 장면마다 안동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든다. 여기서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공연 속 주인공이자, 맛과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는 참여자가 된다.

올해는 '철우회관'의 공간 설계와 공사 준비로 아직 정식 공연을 선보이지는 못했으나, 2027년 상설공연 개막을 목표로, 지역 문화인력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지역 대학의 뮤지컬 동아리와 연계해 상설공연 운영을 위한 공연 인력을 육성하고, '수운잡방'과 종가문화를 주제로 레퍼토리 공연을 제작했다. 지역 축제 기간에는 시범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극장식 레스토랑 '수운잡방'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지역민이 직접 만들고,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 문화산업이다. 손님들은 음식과 공연을 함께 즐기며, 안동의 전통을 현대의 즐거운 놀이로 새롭게 체험한다. '철우회관'의 낡은 벽과 천장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음악과 웃음, 향과 맛이 뒤섞인 공간에서, 안동의 깊은 전통과 역사가 오늘날 넓은 즐거움으로 피어나길 기대한다.



극장식 레스토랑 수운잡방

2 문화사업팀 | 문화로 행복한 도시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안동은「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며,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 신진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한다. 문학,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미술, 전통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화회



안동조각회



로컬그래피 오월



열 두 장구 북 아카데미



옥련합창단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과 발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예술단체의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각 예술단체가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역 내 예술생태계를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지역사회 곳곳에 예술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학교, 마을, 복지시설, 문화시설, 거리 등 생활 공간 속에서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며, 예술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어, 지역민의 정서적 풍요로움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세대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보다 따뜻한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말한 직접적인 단체지원 외에도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공연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이 단순한

‘창작’에 머물지 않고, 시민과 직접 만나 공감과 감동을 나누는 ‘향유의 장’으로 이어지도록 돕고자 한다. 안동의 대표 축제 현장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여 지역 예술인의 예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동안의 창작 성과를 무대 위에서 펼치며 시민들과 예술로 교감하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청년, 가족,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세대 간 문화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은 지역예술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안동이 문화로 행복한 도시로서 시민의 삶에 예술을 녹여내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 창작, 공연, 전시를 통해 지역민은 문화적 여유와 감동을, 예술인은 창작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은 결국 ‘문화로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지역 예술인이 자신의 고장에서 창작의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그것이 바로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안동문화상

‘안동문화상’은 안동의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제정된 상으로, 안동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예술적으로 조명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안동문화상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문학(시, 단편소설)과 미술(한국화, 서양화) 분야에서 각각 우수한 창작 작품을 선정·시상하며, 출품작은 안동의 문화유산, 역사, 인물 등 지역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미발표 순수 창작 작품으로 한정된다. 한국정신문화재단과 안동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이 공모전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동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 창작의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안동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작품들이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안동문화상’은 안동의 문화예술이 지닌 고유한 품격을 이어가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문화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안동국가유산야행(월영야행)

안동의 여름밤을 대표하는 ‘안동국가유산야행(월영야행)’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해 8개 야간테마를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유산활용사업이다.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국가유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야행은 월영교 일대를 중심으로



안동문화상 수상자



월영야행



월영야행

펼쳐졌으며, 달빛이 비춘 월영교 일원을 따라 안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월영야행은 단순한 야간 축제를 넘어,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의 교두보로 자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안동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문화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생활문화와 함께하는 지역행사 지원

이 외에도 문화사업팀은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지역민들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은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문화로 숨 쉬는 안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동새해해맞이



12. 2.(화)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12. 4.(목) ~ 12. 27.(토)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 5갤러리



12. 19.(금) 14:00 / 12. 20.(토) 17:0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12. 24.(수) 19:30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2025. 12. 20.(토) ~ 2026. 2. 1.(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서울역 ▶ 안동
서울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